

믿음과 사랑의 꿈 펼치는 신민당최고위원

박영숙

母情 듬뿍 느낄 수 있는 女性 정치인



그 이의 모습을 본 사람들
마다 절로 “잘 생겼다”
라는 감탄사를 속으로 연발하게
된다. 여자로서 ‘예쁘다, 매혹
적이다’라는 느낌대신 ‘잘 생겼
다, 의연한 기품이 있다’라는 느
낌을 주는 여자.

그런 朴英淑 신민당 최고위원
(59)의 타고난 품모(?)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진 여자로서
드문 정치인이라는 것, 정치인
중에서도 제1야당의 부총재에서
현재는 최고위원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인해 그
이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빼고
는 대다수의 남자건, 여자건 간
에 개인에 따라 느끼는 강도는
틀릴지언정 그이에게 범접하기
어려운 그 무엇들, 나와는 다를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
리라.

인터뷰에 임하는 기자 자신도
앞에서 나열한 여러가지 이유들
로 인해 사실 같은 여자로서 그
이를 흠모하는 마음을 갖기는 했
어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결혼합시다” 이런 투도 아니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니 나와 결혼합시다” 라는 열토당토한 구혼요청을 받은 후 38세에서 이들 모자란 37세 겨울 막바지에 올린 결혼식.



남편
安柄茂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

한다는 사실에서는 그것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여의도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만난朴최고위원은 우선 부드러운 감성을 지닌 여성이었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의 아내였으며, 포근함을 간직한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빠알간 꽃송이를 흔들던 어머니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이 가 고향을 떠나 월남하게 된 것은 15살때쯤이라고 한다. 47년 늦은 여름 안내원을 따라 동생과 함께 38선을 넘기 위해 개성을 향해 가던 기차를 탔던 아득한 옛 일.

그 당시 북한의 삼엄한 감시의 눈을 피해 남쪽으로 향하는 일은 무척 무서운 일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한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해요. 어느 역이었던가, 도착역을 확인하기 위해 나무판자로 된 차장을 들어올리는 순간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감시원과 눈이 마주 쳤어요. 우린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고 감시원은 우릴 취조실로 데려가 심하게 다그쳤었지요.”

그런 나쁜 기억들이 가끔 그이

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북쪽 고향 하면 우선 떠오르는 기억은 우거진 숲과 어릴적 방학때 놀러갔던 외갓집의 초가 앞뒤뜰에 화사하게 핀 복숭아꽃 살구꽃이라고 한다. 또하나, 44년전 어머니가 생면부지의 안내인에게 자식들을 남쪽에 데려가 달라고 내맡기면서 헤어짐의 안타까움에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던 빠알간 꽃송이.

아스라히 스러져가는 고향의 추억을 간직한 채, 살아생전 다시 고향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항상 떨쳐버릴 수 없었던 차에 제85차 IPU 평양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판문점을 거쳐 평양을 방문하게 된 기회는 그이에겐 감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44년만의 고향나들이에서 그이를 맞이해준 것은 꽃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옛고향의 거리풍경이 아닌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메말라 보이는 계단식 밭과 회색빛의 마을집 등이었다. 평양시에 도착한 후 승용차로 숙소로 정해진

모란봉 기슭의 주암초대소(영빈관)를 향하면서 그이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일은 자신이 태어난 수정 58번지, 자신이 다니던 정의여중, 그리고 광성중학교 주변의 교회와 기독교병원에 가봐야겠다는 것이었다.

“44년동안 서울도 몰라보게 변했는데 평양의 변화를 새삼 놀라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태어난 곳, 학교, 교회, 병원 같은 흔적이라도 찾아보고 싶었는데 동명과 거리명을 완전히 개편하였기에 옛 흔적을 되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하여 나에겐 웬지 고향을 잃어버린 듯한 섭섭한 마음이 가슴을 가득 메웠습니다. 산천도 인걸도 간데없는 9일간의 고향방문 동안 그래도 나에겐 조금의 위안이 되었던 것은 대동교 대동문 연광정 같은 유적들은 예전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동강변의 아름다운 능수버들과 포플러나무는 변함없는 푸르름과 함께 옛 정을 솟게 해주었다는 것입니

다.”

어머니와의 약속인데 결혼합시다

자신과 비슷하게 평양에 혈육을 두고도 만나보지 못하는 처지, 자신과 같은 종교에서 활동하던 남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었다는 요소가 맞물리면서 결혼이라는 인연이 맺어진 박최고위원의 남편 안炳茂박사(69. 한신대 명예교수).

사실 안박사는 결혼이 이기주의를 배태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결혼’이라는 의식을 반대했던 사람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이런 그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 때문이었다.

“그분의 어머니가 유암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후 마취에서 깨어나시자마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며느리를 보시는게 소원이라고 하셨대요.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니 장가간 아들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결혼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셔서 영겁결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할 마음을 먹은 거지요.”

어머니와의 약속후 많은 여자들 중에 그이와 결혼하게 된 인



형제가 없는 외아들의 엄마역할, 누나역할, 친구역할, 동생역할까지 다 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다.

연은 YWCA에서 총무로 일하던 노처녀를 노총각이었던 안박사가 유학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주위사람들이 소개시켜 주기 위해 자주 그에게 얘기해 주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어느날 갑자기 그이를 찾아와 다짜고짜로 “결혼합시다” 하더라.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결혼합시다” 이런 투도 아니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니 나와 결혼합시다”라는 얼토당토한 구혼요청을 받은 후 38세에서 이틀 모자란 37세 겨울 막바지에 올린 결혼식.

결혼후 여자가 남편이나 기다리는 ‘해바라기형’ 아내는 너무 힘들다고 말해주었기에 ‘결혼후

에도 내 세계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고, 그후 계속할 수 있었던 그이의 사회생활은 아이의 탄생과 함께 일단 중단된다.

“어느날 아이를 잠재워 놓고 나니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신 직장 그만두시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부득이 둘중 한사람이 자기의 세계를 포기해야 하겠소. 내가 포기하면 좋겠소, 아니면 당신이 좋겠소 하는 정식 제의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래도 남편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단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 단숨에 내가 그만 두겠다고 말했어요.”

그후에도 무급봉사자 형식으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기는 했지만, 형제가 없는 외아들의 엄마역할, 누나역할, 친구역할, 동생역할까지 다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은 대학교 4학년.

정치가인 아내와 어머니

그이의 정치활동은 이 아들이 대학교 1학년때 본격화된다.

평민당이 창당되어 여성계를 대표한 그이가 제1야당의 부총



수도권 상수도 오염여부로 크게 물의를 빚은 팔당원 골재채취 현장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영숙최고위원의 모습.

재직을 맡은 직후 崔一男선생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화도 중 그가 “평민당에도 여자화장실이 있느냐”고 묻더라. 그만큼 평민당의 대외적 인식이 비여성적이고 경직된 것으로 비쳐졌다는 것인데 3년동안의 정치생활을 별 불편없이 수행해나가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당 중 여성유권자를 존중해주고 여성정책에 진지한 태도로 앞장서준 것은 평민당이 아니었을까”하는 소신을 곁들인 평가라고 한다.

평민당이 신민당으로 바뀌면서 李愚貞선생님이 수석최고위원이 되어 여성운동을 정당활동을 통해 같이하게 된 것이 그이에게 큰 힘이라는朴최고위원. 그러나 3년간의 정치생활로 그나마 돌보던 가정일을 전혀 돌보

지 못하게 된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안타까워 했다.

“저의 남편은 미식가는 아니어서 음식에 그리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음식을 만드는 정성은 무척 따지는 편이어서 요즘 내가 남편이 먹는 음식에 대해 신경을 써주지 못해 ‘버림받은 자식’같은 기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도 이제 다 자라서 자신의 생활이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본의 아니게 그 부분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이에요...”

인터뷰 도중에도 자주 차마시기를 챙겨주시던 다정다감함에서, 또한 아들 또래 젊은이들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는 이 땅의 소담스런 어머니의 모습을 한 그이를 보면서 이런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정치인 한 사람 한사람 앞에 진정으로 실천된다면 ‘정치권 불신’과 같은 악재는 생길래야 생길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섰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너무 혼미하기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뭐라 말하기는 무척 힘들군요. 그러나 정치권의 신뢰회복이 우선 화급한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정치권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 조그만 일부더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밖엔...”

흐뿌리는 굵은 빗줄기 속에 우산을 펴들고 걸어가는 그이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면서 삶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었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온 연륜의 소산임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趙香雅기자>

여성들의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의식수준의 급격한 변화로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급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조시대나 해방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사회진출은 금기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체로 1920년까지도 여성에게 참정권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1940년대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여성참정권이 허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1948년이후부터 점차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정도로 여성의 정치 참여는 그리 활발치 못하게 사실이다.

이같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에서 4,304명중 0.9%나 당선되기도 했다. 이는 소수의 숫자이긴 하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했다는 획기적인 사실로 기록되기도 한다.

기초의회 여성참여의 토대마련

일부에서는 여성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나 유권자 홍보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백영옥교수는 기초의회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들을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대체로 여성은 정치에 대한 의식부족과 선거자금부족 때문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

적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남편이나 자녀들의 동의를 구해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으며 남편의 도움을 가장 크게 지적하기도해 눈길을 끌게 해주고 있다.

이번 기초의회선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는 그리 쉽지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나 이는 아직까지 요원한 것들로 보여진다.

지방의회는 아무래도 소규모의 지역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참여 폭 넓혀 政治무대 새 場 열어야



지난번 서울시 구의회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들의 모습